고물가에도 광주·전남 소비 늘었다

광주은행 지난해 7월~올 6월, 업종별 카드매출 전년비 비교

원자재값 상승 등 영향 식음료 29.9%↑·석유류 36.5%↑
IMF 이후 최고 상승 외식물가에 식당 소비 19.8% '껑충'
거리두기 완화·생산 차질 자동차 -20%…전기제품도 줄어

고물가가 지속된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식음료와 연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거리두기 영향으로 호황이었던 전기제품과 자동차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은행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KJ카드(신용·체크) 매출액을 집계해보니 총 5조 209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0년 7월~2021년 6월)보다 15.5%(7003억원) 증가했다.

광주은행이 42개 업종별로 카드매출액을 집계해 보니 자동차판매와 연료판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소비가 전년보다 늘어났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을 포함한 유통업 영리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조907억원 소비했는데, 이는 전년(9593억원)보다 13.7%(131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음료·식품에 대한 지출도 마찬가지다. 2502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29.9%(748억원)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4월부터 전면 해제되면서 일반·휴게음식 부문 매출은 5970억원에서 7152억원으로, 19.8%(1182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먹거리에 대한 카드지출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기도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식자재 가격이 뛰면서 지불해야할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병원과 의원, 약국, 보건위생, 기타의료기관 등을 아우른 카드지출은 5194억원에서 6360억원으로, 22.5%(1166억원) 증가했다. 일상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병원 지출이 25.6% 늘고, 의원(28.0%), 약국(18.3%), 보건위생(18.4%) 등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해외부문 카드지출은 124억원에서 173억원으로, 39.5%(49억원) 증가했다. 국내 숙박시설 지출은 29.0%(297억원→267억원) 늘고, 여행 부문 12.1%(407억원→456억원), 레저용품 26.6%(459억원→546억원) 등 증가했다.

실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최근 1년 동안 의류 카드지출은 552억원으로, 전년(436억원)보다 26.6%(116억원) 증가했다.

영화 관람과 반려동물 부문이 포함된 문화·취미 업종에 대한 씀씀이도 1년 새 31.9%(184억원→243억원) 뛰었다.

이외 연일 고공행진하는 휘발유·경윳값 탓에 연료판매점 카드지출은 2434억원에서 3322억원으로 36.5%(888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새차와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판매 부문은 969억원에서 776억원으로, 20.0%(-193억원) 감소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줄면서 가전 등 전기제품 매출은 4.3%(400억원→383억원) 줄었다.

지난달 지역 소비자물가는 IMF 외환위기 때만큼 크게 올랐으며, 올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는 6.3%, 전남은 7.1%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은 건 2008년 7월(6.3%)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남 물가가 7%대로 오른 건 1998년 11월(8.2%) 이후 23년 7개월 만이다.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광주 7.7%·전남 8.7% 올랐는데,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산세무서, 갤러리 됐다

1층 민원실·복도 지역 작가와 소통 공간으로 꾸며…한희원 작품 전시 중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는 세무서 건물내부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광산세무서는 이날 민원인의 방문이 잦은 1층 민원실과 복도 등 유휴공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지역 내 역량이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지역민과 납세자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삶의 여유로움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자 기획했다는 게 광산세무서의 설명이다.

이번 첫 전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서정적인 회화로 깊은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고 있는 광주지역 대표 화가인 한희원 작가가 참여했다.

이날 전시를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전시행사에서 작품 저작권 등은 작가가 소유, 광산세무서는 전시공간만 무료로 대여하기로 했다. 전시기간 등은 작가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무서라는 기존의 정형화된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들이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잠시나마 낭만을 꿈 꿀 수 있길 바란다"며 "'딱딱한 관공서'가 볼거리 있는 관공서로 변신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산세무서는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세정활동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왼쪽 두번째)과 한희원(가운데) 작가가 작품 전시 행사 기념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 무료 진료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구례농협이 6일 주최한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에서 고령 농업인 400여 명이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의 무료 진료와 장수사진 촬영, 돋보기 제작 지원 등을 체험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물가급등 100대 품목'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연말까지 농산물·생필품 등 최대 70%

광주·전남 342곳을 포함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연말까지 제철 농산물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밥상물가 잡기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연말까지 제철 과일과 수급 불안 농산물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물가급등 100대 품목'을 선정해 이들 품목을 추석까지 평균 30% 안팎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행사 품목은 구매 수요가 큰 상품 중심으로 2주 간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즉석밥과 참치통조림, 김, 가정간편식(HMR), 두부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치약, 칫솔, 물티슈, 세탁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45% 할인된 특가에 판매한다.

품목에 따라 가격할인에 더해 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구매 때 추가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물가급등 100대 품목 외에도 한국농협김치를 비롯한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지난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최대 50%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석 성수기까지 '살맛 나는 국민 밥상' 특별 판매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안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농협은 지난달 7일 소비자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3일까지 '원기 회복 보양식 할인전'을 열고 삼계탕 식재료를 최대 30% 할인가에 판매하며 캐나다 삼겹살·목심은 행사 카드로 결제 때 30% 할인해준다.

소고기는 회원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가에 내놓는다. 9일과 10일 주말 이틀간 농협안심한우 국거리와 불고기(100g)를,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산 냉장 소고기 전 품목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완도전복은 행사 카드로 결제 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낙지, 문어, 장어, 오징어, 흰다리새우, 우럭 등도 2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삼계탕, 설렁탕, 장어 도시락 등 간편 보양식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TP, 올 국비사업 2000억 이상 유치 기대

상반기 735억 유치 확정

광주테크노파크가 올해 2000억원 이상의 국비사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평균 국비확보 예산은 4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2020년 1323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895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735억원의 국비사업 유치를 확정했다.

세부 사업은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사업(211억원) ▲AI가전 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169억원)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150억원)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 구축(135억원) ▲기타 사업(71억원) 등이다.

하반기에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428억원) ▲AI 기반 제조산업 지능화 공정혁신센터 구축사업(355억원) ▲저탄소·고부가 전극재제조 혁신 기술개발사업(282억원) ▲홈서비스 미래 로봇가전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180억원) 등 26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중 유치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4개라는 점에서 올해는 작년 실적을 넘어선 약 200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광주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디지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차세대 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 조성 ▲광주(초광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대선공약 과제로 기획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 중이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3년 연속 국비 예산을 1000억원 이상 확보하면서 지역 미래 전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며 "광주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로운 광주 시대를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오늘 퇴임

9년3개월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조용진〈사진〉 상근부회장이 8일 퇴임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8일 조용진 상근부회장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광주시 8급 기계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명예퇴직 후 2013년 4월 광산업진흥회 제5대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뒤 6대와 7대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했다.

그는 재임 중 10여명이던 직원이 30여명으로 늘었고, 한해 30억원 수준의 예산도 100억원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등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내 광융합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진 상근부회장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고자 한다"며 "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협력 중기 채용 돕는다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업무협약

한전KDN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협력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업무협약을 지난 6일 맺었다.

이날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 협력사 PR(홍보) 챌린지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사의 구인을 돕는 활동이다.

유명 방송인(유튜버)이 협력기업을 직접 찾아가 업체의 장점과 근무조건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한전KDN은 복지·연봉·고용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5개 협력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때 채용지원금 지급에 따라 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돕고, 근무조건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장현 사장은 "동반성장 PR챌린지 사업을 통해 복지, 급여 등이 우수하지만 구직자에게 알려지지 않아 우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4.27(+42.26)
↑	코스닥	757.97(+13.34)
↑	금리 (국고채 3년)	3.262(+0.023)
↓	환율 (USD)	1299.80(-6.50)